

특보 2014년 1월 16일(목)

발행인 김상철 편집인 김정훈

편집부 김광석 김다은 박유진 박지환 백원경 장상원 정승권 정한성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158-701) 전화 2650-7390~2 팩스 2650-7393

www.cbsunion.or.kr



보도·편성국장 후보자 압축... 23일 전 조합원 투표

차기 보도국장과 편성국장 후보자가 각각 5명과 3명으로 압축됐다.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전 조합원 투표는 오는 23일 치러진다. 지난 13일 해당 부서원을 상대로 실시된 보도·편성국장 추천투표 1차 선거 결과, 보도국장 추천투표 2차 선거에는 구병수 김규완 김준옥 임형섭 하근찬(가나다 순) 후보가 오르게 됐다. 편성국장 추천투표 2차 선거에는 박명규 이기운 지웅(가나다 순)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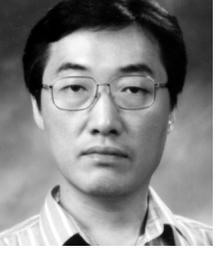
보도국장 추천투표의 1차 선거의 경우 전체 선거권자는 51명이며 이 가운데 46명(투표율 90%)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수의 10% 이상을 확보한 후보자가 2차 선거에 오르는 규정에 따라 5표 이상을 확보한 5인이 추려졌다.

편성국장 추천투표의 경우 전체 선거권자 39명 가운데 36명(투표율 92%)이 투표에 참여했다. 역시 규정에 따라 4표 이상을 확보한 3인이 가려졌다.[편성·보도국장 후보자 추천선거에 관한 규정 제26조]

23일 열리는 2차 투표에는 전국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게 된다. 다만 보도국장과 편성국장 추천 투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부서 조합원의 경우 개표 후 집계시 2배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즉 모든 조합원에게는 보도국장과 편성국장을 추천하기 위해 각기 2장씩의 투표용지가 주어지지만, 보도국장 선거에 투표한 보도국 조합원과 편성국장 선거에 투표한 편성국 조합원의 투표수에는 2를 곱한다. 한편 2차 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을 위해서는 20일과 21일에 걸쳐 부재자투표도 실시된다. 부재자투표는 선거 당일 지방 또는 해외출장 및 휴가를 가야하는 조합원이 대상이다.

개표 결과 득표 순위에 따라 유효득표율의 20% 이상을 얻은 후보 3인씩을 노동조합이 회사에 통고하게 된다. 20% 이상을 얻은 후보가 2인일 경우 2인을 통보하지만, 1인 이하일 경우 공정방송협의회에서 협의해 최종 후보자를 2인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확정 통보는 2일간의 소청기간을 거쳐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인사권자가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1인씩을 차기 보도국장과 편성국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마감된다.

구분	성명	소속	직위(호봉호칭)	생년월일	입사일	입사부서	주요인사사항	사진
1	구병수 (具柄秀)	보도국	선임기자 (부장대우)	65.11.03	92.04.01	보도국 기자	1992.04.01 보도국 기자 2006.01.12 마케팅정책부장 직무대행 2007.06.25 보도국 기자 2008.02.25 미국 LA, JBC(미주중앙방송) 2009.03.31 방송본부 보도국 기자(파견해제) 2009.06.23 춘천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2012.01.01 미디어본부 보도국 선임기자	
2	김규완 (金奎完)	경인센터	경인센터장	64.06.20	90.05.01	보도국 기자	1990.05.01 보도국 기자 2006.03.16 문화체육부장 겸 노컷뉴스부장 직무대행 2008.03.01 전남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2009.01.12 방송본부 보도국 기자 2009.06.18 방송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2010.03.08 미디어본부 보도국 정치부장 2011.04.06 미디어본부 보도국 선임기자 2012.01.17 미디어본부 경인센터장(부장급)	
3	김준옥 (金準玉)	보도국	선임기자 (부장대우)	63.01.07	92.04.01	보도국 기자	1992.04.01 보도국 기자 1999.05.21 노동조합 사무국장 2002.08.21 보도제작국 경제부 기자 2007.11.13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부장 2008.06.30 기획조정실장 직대 겸 정책기획부장 2009.06.15 방송본부 보도국 보도위원 2011.04.06 미디어본부 보도국 스마트뉴스팀장	
4	임형섭 (林瑩燮)	춘천CBS	춘천CBS 본부장	61.02.18	89.05.01	보도국 기자	1989.05.01 보도국 기자 2004.01.01 부산방송 기자 2005.01.01 보도국 기자 2006.12.19 해설주간 2007.06.27 포항방송본부장 2009.06.15 방송본부 보도국 보도위원 2010.03.08 미디어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2011.04.06 미디어본부 보도국 선임기자 2012.12.20 춘천방송본부장	
5	하근찬 (河瑾燦)	보도국	문화체육부장	62.04.25	95.03.15	춘천방송 보도국 기자	1995.03.15 춘천방송 보도국 기자 2006.03.16 춘천방송 보도제작국장 직무대행 2009.06.23 방송본부 보도국 기자 2012.01.01 미디어본부 보도국 문화체육부장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구병수, 보도국 선임기자

보도국장 선출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끔 저를 선택한 표심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획력, 기사작성능력, 취재력 등등 기자로서의 능력은 보잘 것 없기 때문에 다른 주문이 담겨 있으리라는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선.후배간의 배려와 존중보다는 불신과 갈등이 무겁게 흐르는 보도국의 지금을 바꿔달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보도국은 기사생산부서입니다. 기사생산이 본질이겠죠. '좋은'이란 수식어가 붙어야 겠지만요.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말이 있듯이 기사생산을 위한 의욕(내부의 힘)과 의욕을 북돋을 시스템(외부의 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사는 생동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도국 구성원은 모두 훌륭한 자원입니다.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영역에서 분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사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 조직의 문제 때문에 의욕이 꺾여 자원의 활용도가 감소된다면 회사전체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도국 구성원간의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한 '좋은' 기사생산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를 위해 가고 싶은 부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데스크를 연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데스크에게도 같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데스크는 각 부 부장뿐만 아니라 부장급 이상 기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선배에 대한 존경과 후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짝짓기는 어렵겠죠. 이를 통해 보도국 성원들간의 신뢰구축에 무엇인지 걸림돌인지, 무엇이 디딤돌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대기자와 선임기자들은 국제부문과 편집부문에 집중 배치해 점진적으로 숙직근무를 없애고 아침뉴스는 강화된 편집팀이 맡아 인력운용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해외출장, 안식년 휴가 등은 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기자는 아닙니다. 현상을 꿰뚫는 통찰력도 해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은 보도국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서말의 구슬을 꿰 수 있는 실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좋은’ 기사생산이라는 본질에 대한 화합과 일치,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의 존중이 날줄과 씨줄이 되어 촘촘히 짜여지는 건강한 조직만이 미래의 변화와 충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선교자가 될 것인가? 순교자가 될 것인가?

-김규완, 경인센터 경인센터장

10년전부터 CBS를 휩싸고 있는 도그마 가운데 하나가 ‘원소스 멀티유즈’입니다.

CBS의 경쟁력은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그 이전보다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원소스 멀티유즈’는 분명 언론이 갈 방향입니다.

그러나, ‘원소스 멀티유즈’가 전가의 보도, 무조건적인 최고가치라는 도그마에 함몰돼 CBS에서는 언젠가부터 왜곡된 형태로 진행돼왔습니다.

바로 ‘원소스 멀티유즈’가 아닌 ‘원맨 멀티유즈’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이 우선가치로 떠받들어지는 요즘 한국사회에서 선비라고 부를 수 있는 직업은 이제 기자, 피디 등 언론인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인만이 권력과 자본의 그늘진 장막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눈과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CBS 언론인들은 이런 기자정신을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CBS에서는 그 기자정신, 선교사적인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된 희생’이라는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져 그만큼의 노동강도가 추가되고 ‘나 혼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SNS시대의 미덕인 것처럼 되버렸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원소스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원맨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 CBS비전 60주년 선포식에 갔습니다. 20여년을 기자생활을 거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CBS 60년 정신을 지켜온 것이 자랑스럽지만 60년전과 현재가 달라질 바 없다는 슬픈 현실에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보도국의 책상은 종로에서 옮겨올 때 그대로이며, 취재장비와 여건 등도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장 취재인력은 제가 20여년 입사 때보다도 적습니다.

콘텐츠 생산과정은 물론 소통과정은 전근대적이며 여전히 일방적입니다.

기자정신은 직업에 대한 미화일 뿐 무조건 순교를 요구하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가치 공감대’ 없는 소통부재 상황에서 진리와 말씀전파는 강요된 순교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싶은 시구가 있습니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김수영의 ‘폭포’중에서

아름답게 살아숨쉬는 선교사, 자존심 당당한 기자부터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생활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생활신조로 삼고 있는 것이 ‘어제 하지 않은 일 한가지만 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도국장에게 출마한 것은 제 기자생활 20여년에 대한 조용한 평가이자 이런 신념의 실천입니다.

보도국장에 나선 것은 단지 ‘제가 어제 하지 않은 오늘 할 일’이 더 많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매체 시대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해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며 기자생활을 해왔습니다.

방치된 지역국 콘텐츠를 살리고 편성국과 TV국 등의 콘텐츠를 어떻게 융합해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중앙국과 지역국이 공존하고 원소스가 되어 가치를 발휘할 것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국과 지역국, 각 직종이 상생하며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노컷뉴스부장 시절 진행했던 전국보도국장회의도 다시 상설화하고 편성.티비국 등과의 콘텐츠 교류도 되살려 격리된 각 콘텐츠 생산부서와의 협업.상생체제를 복구해야겠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한 1차 조건은 사람입니다. 원맨쇼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60주년을 축하한만큼 ‘60동이’ 신입기자, 신입직원들의 얼굴도 서울과 전국 지역국에서 한꺼번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60주년의 영광보다는 미래 60년의 영광을 만드는 초석을 만드는 것으로 일해보겠습니다.

현장기자에 이어 노컷뉴스 부장,문화체육부장,지역 보도국장, 사회부장, 정치부장을 거치며 얻은 경험으로 더 강한 콘텐츠, 미래를 내다보는 언론사를 만드는데 돌 하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안과 밖으로 소통을 하되 타협하지 않고 CBS의 지조를 지키되 살아 숨쉬는 ‘보도국이라는 출입처를 가진 여러분과 같은기자’가 되겠습니다.

CBS가 어떤 언론사입니까?

-김준옥, 보도국 선임기자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한 척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노를 저어대는데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 자리만 빙글빙글 맴돌고 있습니다.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다그치기만 하는 선장과 아무런 기쁨도 보람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지쳐만 가는 선원들... 혹시 지금의 ‘CBS호(號)’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안녕들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 물음 앞에 CBS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또 한 쪽에서는 CBS 60년을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 선포’의 팡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CBS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새 보도국장이 누가 되든 보도국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보도국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약속하기에 앞서 저와 CBS 구성원 모두에게 이 질문을 먼저 드리려 합니다. CBS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해나갈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CBS가 어떤 언론사입니까?”

CBS가 ‘유사보도’나 일삼고 있는 ‘종교방송’입니까? CBS가 어찌하다 ‘유사보도’라는 저들의 말 한 마디에 혼비백산하는 언론사가 됐습니까? CBS는 ‘그렇고 그런’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도 결코 아닙니다.

CBS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의 자유와 정의와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온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종합편성방송’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CBS에 부여하신 언론 사명이며,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CBS의 정체성입니다. CBS가 세상 권세(권력과 금력)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과 공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뭘까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CBS가 정말 사랑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중립(?)을 지켰을 때입니까? 불의한 세상에 맞서, 약자의 편에 서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천하에 선포했을 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CBS가 '교회' 안에 안주하려는 것을, '종교방송'의 틀 안에 갇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히 세상(가나안)과 맞서 싸워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 CBS가 지금 안락치 못하다면, 이 길을 향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CBS의 '정체성'을, '방향성'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비전을 품고 10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역시 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본질 회복을 통한 혁신

CBS가 어떤 길을 가야할지 분명해졌습니다. CBS의 본질,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그 혁신의 첫 걸음은 감히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CBS만의 방송을 하고, 세상의 꽃대가 되는 CBS만의 보도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파도, 웹도, 앱도, 스마트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오롯이 담아내지 못한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CBS 구성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CBS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담대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CBS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지금까지보다 더욱 자랑스러운 '빛과 소금'의 CBS 역사가 차곡 차곡 쌓여져 갈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 5:13~15)

◆ "기자는 무엇으로 살까요?"

보도국장 후보로서 특별히 기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까 합니다.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기자는 자기 이름 석 자를 걸고, 그 이름 석 자에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를 쓰는 것이 재미가 있고 신바람이 나와야 합니다. 기사를 쓰는 것이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재미와 그 보람에서 용솟음쳐 오르는 자부심이 더욱 더 좋은 기사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재미와 보람, 자부심이 창의(創意)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미와 보람과 자부심을 가득 안고 가장 'CBS다운' 기사를 쓸 수 있다면 CBS 기자로서 이 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재미와 보람, 자부심이 비단 기자들뿐만 아니라 CBS 구성원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함께, 내일로

-임형섭, 춘천CBS 본부장

선후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사이후 평생을 기자로 살아오다가 사랑하는 보도국을 잠시 떠나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보도국, CBS뉴스가 맞고 있는 위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우리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기에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 한 번 '강력한 뉴스미디어로 도약'하는 일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크게 보아 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째는 공정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매체 환경에서 언론사들의 자본 예측 현상이 심해지면서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빚어질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은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이고 CBS의 자산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사실 보도'에 충실하면서 객관성,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에 충실한 '객관' 저널리즘의 구현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도위원회'를 상시 대화 채널로 전환해 우리 뉴스 전반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간의 토론과 대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 째, 소통의 부재입니다. CBS 보도국의 자랑이었던 공동체적인 문화나 활력이 실종되고 냉소와 갈등이 만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국 구성원 간의 스킨십 확대가 절실한 만큼 비공식, 현장 중심 미팅을 활성화하고, '타운 미팅' 방식의 의사결정과정을 구축하는 등 소통 경로를 다각도로 열어 유쾌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도국장 후보로 나서며...

-하근찬, 보도국 문화체육부장

한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바람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안녕할 수 없는 사회가 됐을까'라는 반성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무관심과 회피가 더 이상 안녕함이 아니며, 부당과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CBS 중심, 우리 보도국도 안녕하지만은 않습니다.

세 째, 뉴스 경쟁력의 정체입니다. 뉴스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뉴스 콘텐츠의 차별화를 위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유취재팀'과 일반 부처 출입기자나 지역국 기자들이 수시로 결합해 '특별한 이야기 거리'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기자들과 '뉴미디어부'와의 협업을 통해 뉴스 이용자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형 콘텐츠 생산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뉴스혁신의 시도는 '뉴미디어부와 자유 취재팀'을 인프라로 활용해 일반기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째,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선 전문기자제도 도입과 역할분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만 전문기자제도는 10년차 이상의 기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기자 전체의 전문화를 중장기적으로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개별적 동의를 전제로, 라디오 방송 및 온라인 이슈 대응, 대외협력업무 등에 고참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여러분, 소통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강력한 뉴스 미디어로의 재도약'이란 비전은 결코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함께, 내일로' 나아가십시오. 희망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희망을 써내려 갑시다. 감사합니다.

전통처럼 여겨지던 '소통'과 '신뢰', '다독임'과 '넉넉함'은 언제부턴가 '불통'과 '불신'으로 대체돼 구성원들을 물과 기름의 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후배 간 믿음과 존경, 배려는 사라지고, 생각의 다름도 인정하지 않으며, 허물을 들춰내려 할 뿐 감싸 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겪는 부당함과 불의에 '내 일이 아니면 된다'는 식의 태도도 보입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채, 내 일이나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만연한 보도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선배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전통처럼 여겨지던 '소통'과 '신뢰', '다독임'과 '넉넉함'은 언제부터가 '불통'과 '불신'으로 대체돼 구성원들을 물과 기름의 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후배 간 믿음과 존경, 배려는 사라지고, 생각의 다름도 인정하지 않으며, 허물을 들춰내려 할 뿐 감싸 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겪는 부당함과 불의에 '내 일이 아니면 된다'는 식의 태도도 보입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채, 내 일이나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만연한 보도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선배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CBS는 14일 '창사 60주년 비전 선포식'을 열고 "60세 청년의 연륜과 패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최고의 스포츠 미디어 그룹으로 우뚝 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희망만을 말하기에 우리 내부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 위기 상황입니다.

희망을 말하기에 앞서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60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언론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열정과 패기라는 내부 동력을 어떻게 회복할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마음가짐은 돼 있는지, 이번 보도국장 선거는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돼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풍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후배 간 서로 감싸고 보듬어 주는 노력이 우선입니다. 조직력의 회복입니다.

늘 그래왔듯 우리 보도국은 힘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만의 특유의 독심과 전통, 역량이 있습니다.

보도국장 후보로서, 아니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안녕한 보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방위특보

편성국장 후보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호봉호칭)	생년월일	입사일	입사부서	주요 보직	사진
1	박명규 (朴明奎)	편성국	아나운서 (국장대우)	60.05.23	87.02.01	편성국 아나운서	1987.02.01 편성국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1995.12.01 편성국 아나운서실 차장대우 1996.10.01 편성국 아나운서실 차장 2003.04.24 편성국 아나운서부장 2006.01.12 부산방송 보도제작국 방송위원 2006.12.19 편성국 아나운서부 아나운서 (부장) 2009.06.29 방송본부 편성국 아나운서부장 2010.03.08 미디어본부 편성국 아나운서 (국장대우)	
2	이기운 (李起雲)	편성국	프로듀서 (국장대우)	63.01.13	90.05.01	편성국 프로듀서	1990.05.01 편성국 프로듀서 1995.07.01 춘천방송 프로듀서 1995.10.12 편성제작국 프로듀서(파견해제) 1998.02.02 보도국 파견(~99.03.09) 2006.10.16 편성국 제작부장 2008.03.01 편성국 편성부장 2008.07.07 방송본부 편성국 부국장 (편성부장) 2009.06.18 울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 편성팀장 2010.10.07 미디어본부 편성국 프로듀서	
3	지웅 (池 雄)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64.06.16	91.04.01	편성국 프로듀서	1991.04.01 편성국 PD 1995.01.01 기획조정실파견 1997.06.02 노조사무국장 2003.04.24 편성제작국 FM부장직대 2005.01.01 편성국 제작부장 2005.10.06 TV본부 제작3팀장 2006.01.12 TV본부 제작부장 2006.06.12 TV본부 TV제작단 편성부장 2008.01.12 TV본부 TV편성제작국 제작부장 2009.06.15 문화사업본부장 2010.03.08 미디어본부 TV제작국장 2010.12.17 미디어본부 크로스미디어센터장 2012.12.20 기획조정실장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중...

-박명규, 편성국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편성국 아나운서부 박명규입니다.

저는 28년간을 CBS의 아나운서로, 또 편성국 국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회사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한해도 없었고, 방송여건 또한 늘 녹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앞으로도 역시 미디어환경 다변화라는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을 담당하는 편성국이 가진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의 결집,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열정에서 나오는 노력을 통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고비 또한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율적인 방송제작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방송국의 주된 업무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훼손된다면 청취자들이 원하는 방송과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가해지는 제한들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듣는 사람이 즐거우려면 만드는 사람이 먼저 자유로워야하고 즐거움을 만끽해야합니다.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작과 진행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송우선의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제작을 위한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방송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종교, 그리고 사회를 잇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인 현재 방송의 미디어 소통자로서의 역할은 다채롭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 상황과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고 제작과 진행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한 소통에의 대처, 특히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시스템의 습득 등 늘 앞서서 생각하고 익혀서 그들과 마주하고 그들에게 맞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편성국원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열정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애정을 갖고 공을 들인 방송프로그램이 청취자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으로 충분히 좋은 보상이 되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제작자, 진행자에게 편성국 자체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보상을 비롯해서 그밖의 프로그램 배당 등의 보상이 포함될 것입니다.

편성국원들이 동료이자 청취자로서 서로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를 통한 응원과 격려의 차원에서 분기별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방송인을 선정하고 보상해서 방송에 대한 열정을 북돋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보도제작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사간 지역본부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도출되어 지역본부들이 활력을 얻고 이 또한 CBS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각 지역의 보도 제작국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입사시에 일정기간 수습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피디, 아나운서들에게 일정기간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일정 기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편성국에서 방송제작과 진행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고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전부터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직장인 CBS에서의 생활 또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한다면 그 목표는 우리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표준FM도 도약을 시작합니다

-이기운, 편성국 프로듀서

편성국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세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방송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CBS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실현이고, 사회과학용어를 빌리자면 사회정의 실현 또는 억강부약 정도일 것입니다. 이를 방송을 통해 구현해 내겠다는 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편성권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과 권력, 교계의 특수한 이해관계나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편성권과 제작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편성국장은 지장보다는 덕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디, 아나운서들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독한 창조작업에 간섭보다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인데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몇가지를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편성국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면서 웃고 활기가 넘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영화도 함께 보고 등산이나 취미활동도 활성화하고 신나게 놀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자율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창의력의 원천은 자율입니다.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결국 피디, 아나운서의 경쟁력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고뇌의 과정에는 자율성이 필수요소입니다.

셋째, 사람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배당해서 성과를 높이되 적절한 안배도 고려하겠습니다. 개인의 캐리어를 파일화해서 관리하고 지속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모색하고, 성과에 대한 격려와 보상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전부인 조직입니다.

넷째, 성공도 습관입니다. 음악FM의 성공을 거울삼아서 표준FM도 도약해야 합니다.
2008년에 전사적으로 합의했던대로 종합편성을 지향하되, 아침, 저녁 시사벨트는 인력을 더 지원하고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선교프로그램을 TV와 전략적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중년타겟으로 성공적인 음악FM도 장기전략을 고민해가야 합니다.

다섯째, 제작에 필요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방송사입니다. 핵심인력인 방송제작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내 위상도 높여가고, 자리배치도 창의적으로 바꿔보고, 모두가 정년퇴임 할 때까지 주눅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몇몇 선배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이자 자부심입니다.

방송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퇴직할 때 까지 신명나게 방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보도, 기술, 경영파트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한축도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한 몸입니다. 교류의 폭을 넓혀보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역국과도 방송참여 등 교류폭을 넓히겠습니다.

우리는 창의력이 넘치는 강소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음악FM은 쌓여왔던 역량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폭발적으로 청취율이 늘어났습니다.
표준FM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일의 성패는 환경에 달려있는게 아니라 의지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저는 능력은 모자라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자세는 되어있습니다.
역사적인 CBS 파업 때는 노조부위원장으로 PD협회장, 제작부장, 편성부장을 하면서 여러분과 늘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최소한,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지웅,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1. 2년 임기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2. 라디오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3. 한 명의 PD가 되겠습니다.
4. 편성국장실에서 나오겠습니다.
5. 구성원과 가장 대면접촉이 많았던 국장으로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6. 잔소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7. 많이 웃겠습니다.



공방위특보

Q)보도국장과 편성국장의 후보 자격은 무엇인가요?

A)해당부서 또는 직종에 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책임보직부장 경력 이 있으며, 19년차 이상 또는 19호봉(대졸 균필 기준) 이상인 직원은 보도·편성국장의 후보가 됩니다.

Q)선거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선거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이신 분은 선거권 자이며, 직원이더라도 조합원이 아니면 선거권이 없습니다. 추천투표 제도가, 회사가 노동조합에 적합한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Q)보도국이나 편성국원이 아닌데도 굳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나요?

A)그렇습니다. 보도국장과 편성국장은 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임과 동시에 CBS의 뉴스 보도와 프로그램 편성을 총괄 책임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CBS의 공정방송을 담보하고 책임지는 자리의 보직자를 추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단 보도국원과 편성국원이 아닌더라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보도국과 편성국 조합원에게는 2배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Q)선거운동은 못하나요?

A)일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당선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추천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자칫 과도한 경쟁으로 갈등을 심화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자의 정견문과 간략한 프로필은 제공됩니다.

Q)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은요?

A)선거운동을 벌이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후보자나 선거인은 투표 이후에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방송협의회는 이 점을 강조했으며, 모임이나 통신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누구든 그러한 행위를 접하신다면 노동조합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투표 결과는 어떻게 공개되나요?

A)추천 후보로 결정된 후보자는 이름과 순위만 공개합니다. 그밖의 사항들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사장은 이 가운데 보도국장과 편성국장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인사권을 존중함으로써 경영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보도·편성국장 후보자 공청회 개최-16일 편성국장 후보자, 17일 보도국장 후보자 대상

보도·편성국장 추천투표 2차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가 참석하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후보자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거권은 전체 조합원에게 주어지지만 해당 부서원이 아니라면 어떤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조합원일 경우 각종 정보로부터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공청회다.

공청회는 지난 2012년 편성국장 후보자 추천 투표 당시 처음 열렸다. 처음 시도된 것이라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각 후보자의 비전과 현안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노사간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후보자 공청회를 추진했다. 조합 또는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주최하는 데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회사 차원의 공식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노사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공청회의 주최는 각 직능단체가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각 직능단체의 공청회 개최를 인정하고, 공청회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에 이해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PD협회와 아나운서협회가 주최하는 편성국장 후보자 공청회나 16일(목요일) 오후 6시, 목동 사옥 지하2층 예비실에서 우선 열린다. 이어 기자회견이 주최하는 보도국장 후보자 공청회가 17일(금요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각 공청회는 영상으로 녹화되며, 노동조합은 공청회가 마감한 직후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을 위해 녹화본 시청 방법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후보보다 강력한 '말'은 없습니다.

투표보다 강력한 소통은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추천투표제도의 남은 과제

보도·편성국장 추천투표제는 CBS의 보도 기능이 부활한 이후인 1980년대 말 도입되었다. 노동조합이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권자는 그 안에서 최종 적임자를 결정하는 CBS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이미 그 역사가 30년을 바라보게 되면서 제도는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는 않다.

우선 후보자가 많음을 넘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도국장 투표의 경우 예비후보 명단에 오른 이들의 수가 53명이나 됐다. 편성국장 후보의 경우도 현재 편성국원 총 수에 버금가는 38명이다. 이 가운데는 이미 보도국장이나 편성국장을 지낸 간부들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자동으로 후보가 되는 제도 때문으로, 후보 난립에 따른 비효율을 생각한다면 제도 개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에서 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자가 후보의 자격이 기 때문에 보도국이나 편성국에 한번도 소속되지 않았어도 후보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후보 가운데 일부는 현재 조합원이고 나머지는 조합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합원 여부에 따라 어느 후보는 가중치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선거권이 있고, 어느 후보는 선거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세종시 특파원의 경우 투표가 마땅치 않다는 점, 선거운동이나 공청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노사간 공정방송협의회는 이번 선거 이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